

꼬마 명사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어린아이.

- 귀여운 꼬마.
- 꼬마 손님.
- 꼬마 신랑.
- 꼬마를 돌보다.
- 꼬마를 혼내다.
- 꼬마와 놀다.
- 옆집 꼬마는 귀엽기로 소문이 났다.
- 봄이 되면 동물원에는 꼬마 손님들이 많아진다.
- 가: 우리 집 꼬마가 자꾸만 자전거를 사 달라고 조르네.
- 나: 개가 벌써 자전거 탈 나이가 됐나?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크기가 작은 물건.

- 꼬마 신발.
- 꼬마 옷.
- 꼬마 우산.
- 꼬마 자동차.
- 꼬마 컵.
- 나는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꼬마 김밥을 좋아한다.
- 크리스마스트리에 여러 가지 색의 꼬마 양말을 달아서 장식했다.
- 가: 이 꼬마 자동차 정말 귀엽다!
- 나: 그렇지? 조가 생일 선물로 샀어.

(놀리는 말로) 키가 작은 사람.

- 꼬마라고 놀리다.
- 꼬마로 불리다.
- 키가 작은 나는 친구들에게 늘 꼬마라고 불렸다.
- 남자 어른보다도 키가 큰 그 친구 옆에 서면 나는 영락없는 꼬마였다.

아비 명사

(낮춤말로) 자녀를 둔 남자. 또는 그 사람을 부르는 말.

-요새 승규 아비는 통 보이질 않네.

-지수 아비는 아까 지수랑 어디를 가는 것 같더라.

-유민이 아비가 일을 도와줘서 오늘 일은 일찍 끝났어.

-가: 민준이는 민준이 아비하고 똑 닮았더군.

-나: 아들이 아빠 얼굴 닮는 게 당연하죠.

결혼하여 자식이 있는 아들을 그의 부모가 이르는 말.

-아비는 왜 안 오고 너희 둘만 왔느냐?

-민준아, 네 아비한테 전화 좀 자주 하라고 해라.

-아비가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네가 신경 좀 써라.

-가: 정말 훌륭한 손주 분을 두셨어요.

-나: 아비가 일찍 죽고 우리 며느리가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요.

(낮추는 말로) 자녀가 있는 여자가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.

-어머니, 아비가 내일쯤 전화 드린대요.

-아버님, 아비가 요새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.

-아버님, 아비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.

-가: 애들 아빠는 왜 같이 안 왔니?

-나: 어머니, 아비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못 왔어요.

(낮추는 말로)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.

-이 아비가 너희를 볼 면목이 없구나.

-결혼하면 아비는 신경 쓰지 말고 다들 나가 살아라.

-아비가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너희들 보기가 미안하구나.

-가: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.

-나: 아버지, 그런 말씀 마세요.

외동아들 명사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다른 자식 없이 하나뿐인 아들.

- 귀여운 외동아들.
- 외동아들이 있다.
- 외동아들을 기르다.
- 외동아들을 낳다.
- 외동아들을 사랑하다.
- 우리 부부는 어렵게 낳은 외동아들을 귀하게 길렀다.
- 외동아들인 승규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.
- 가: 요즘 너희 부부 금실이 예전만 못 한 것 같다?
- 나: 말도 마. 아내가 외동아들한테만 빠져서 나는 아예 찬밥 신세야.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다른 아들 없이 하나뿐인 아들.

- 늦둥이 외동아들.
- 귀여운 외동아들.
- 외동아들이 있다.
- 외동아들을 갖다.
- 외동아들을 기르다.
- 외동아들을 낳다.
- 외동아들을 사랑하다.
- 남편이 죽고 외동아들마저 군대에 보내니 집안에는 여자들만 남았다.
-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아버지는 우리 4남매 중 막내 외동아들을 유독 편애하셨다.
- 가: 승규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된대?
- 나: 누나가 두 명 있는 외동아들이래.

유대감 명사

서로 가깝게 이어지거나 결합되어 통하는 느낌.

- 정서적 유대감.
- 유대감이 강하다.
- 유대감이 약하다.
- 유대감을 강화하다.
- 유대감을 느끼다.
- 유대감을 형성하다.
-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.
- 체육 대회에서 함께 응원을 하다 보니 반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.
- 가: 오래 다니던 회사를 떠나니 서운하지 않으세요?
- 나: 저는 회사 동료들과 큰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.

총각 명사

결혼하지 않은 어린 남자.

-다 큰 총각.

-잘생긴 총각.

-총각 신세.

-총각이 결혼하다.

-총각이 장가가다.

-그 총각은 결혼을 하면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 같다.

-승규는 옆집에 사는 착하고 예의 바른 총각이다.

-가: 선생님, 주변에 어디 괜찮은 총각 없어요?

-나: 왜요? 소개해 줄 만한 좋은 여자라도 있어요?

여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남자.

-총각 딱지.

-총각 시절.

-총각 신세.

-총각을 만나다.

-총각에서 벗어나다.

-최 씨는 마흔이 넘었지만 아직도 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.

-총각이라고 놀림을 받던 녀석은 여봐란듯이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다.

-가: 너 설마 아직도 총각인 거야?

-나: 응, 난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랑 잠자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야.

알보다 동사

실제보다 낮추어 하찮게 보다.

-알보는 눈빛.

-알보는 말투.

-알보는 태도.

-경쟁자를 알보다.

-다른 팀을 알보다.

-상대방을 알보다.

-부모는 아이의 재능을 알보지 않고 키워주려고 노력했다.

-우리 팀은 상대 팀의 실력을 알보다가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.

-의사는 작은 증상이라도 알보지 말고 병원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.

-가: 이번 시험은 범위가 좁아서 대충 공부해도 될 것 같아.

-나: 그렇게 알보다 큰코다친다.

찼찼매다 동사

어려운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다.

-찼찼매는 모습.

-찼찼매며 땀을 흘리다.

-찼찼매며 진땀을 빼다.

-일이 풀리지 않아 찼찼매다.

-지수는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찼찼맸다.

-승규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찼찼매고 있었다.

-나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찼찼매던 때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.

-가: 오늘까지 이 일을 다 끝내야 하는데, 혼자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.

-나: 혼자 찼찼매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해 보는 게 어때?

다른 사람이나 일에 놀리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를 펴지 못하다.

-찼찼매며 어려워하다.

-선배의 말에 찼찼매다.

-여자 친구에게 찼찼매다.

-시어머니 앞에서 찼찼매다.

-지수는 약속을 어겼다고 화를 내는 친구에게 찼찼매며 변명을 했다.

-평소에는 호탕하던 남편이 상사 앞에서 찼찼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.

-가: 넌 여자 친구에게는 왜 그렇게 찼찼매냐?

-나: 찼찼매다니, 그냥 내가 저 주는 거야.

양해 명사

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잘못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임.

-사전 양해.

-양해 사항.

-양해가 되다.

-양해가 있다.

-양해를 구하다.

-양해를 얻다.

-시민들의 양해가 있어서 길을 막고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.

-학생들의 양해를 받아 학기 중에 도서관 공사를 하기로 했다.

-가: 먼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?

-나: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

꾸짖다 동사

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몹시 나무란다.

-꾸짖는 소리.

-아이를 꾸짖다.

-자식을 꾸짖다.

-잘못을 꾸짖다.

-큰 소리로 꾸짖다.

-호되게 꾸짖다.

-내가 큰 소리로 잘못을 꾸짖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.

-선생님은 나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꾸짖으셨다.

-가: 누가 이렇게 교실 앞 복도를 어지럽혀 놓았어?

-나: 제가 물감을 실수로 쏟았어요. 바로 치울테니 꾸짖지 말아 주세요.

누이 명사

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나 일가친척 가운데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.

-사촌 누이.

-어린 누이.

-누이 노릇.

-누이가 있다.

-누이를 만나다.

-민준은 어린 누이를 맡아서 보살피는 좋은 오빠이다.

-누이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.

-가: 너 어제 낯선 여자랑 같이 가던데 그 여자 누구니?

-나: 내 누이야. 형제지만 별로 안 닮았지?

봐주다 동사

남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다.

-사정을 봐주다.

-실수를 봐주다.

-잘못을 봐주다.

-형편을 봐주다.

-너그럽게 봐주다.

-아버지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늘 너그럽게 봐주셨다.

-사장은 노동자들의 힘든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.

-가: 동생이 내 색연필을 부러뜨렸어요.

-나: 아직 어려서 그러니 언니인 네가 봐줘라.

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힘이 되어 주다.

-숙제를 봐주다.

-시험공부를 봐주다.

-일을 봐주다.

-집안일을 봐주다.

-형은 동생의 일기에 틀린 철자가 없는지 봐주었다.

-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친구가 새로 이사 갈 집을 봐주었다.

-가: 민준아, 영화 보러 갈래?

-나: 오늘 저녁에 지수 발표 연습하는 거 봐주기로 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.

핏줄 명사

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관.

-굵은 핏줄.

-핏줄이 보인다.

-핏줄을 찾다.

-핏줄이 부풀어 오르다.

-핏줄을 일으키다.

-간호사는 환자의 핏줄을 찾아 주사기 바늘을 꽂았다.

-그녀는 퍼렇게 핏줄이 돋은 팔목으로 힘겹게 일을 하고 있었다.

-가: 의사 선생님, 요즘 심장이 두근거리고 핏줄이 떨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요.

-나: 무언가 초조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있나요?

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와 혈연관계가 있는 갈래.

-같은 핏줄.

-핏줄을 계승하다.

-핏줄을 따지다.

-핏줄을 잇다.

-핏줄에 이끌리다.

-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이 양반 핏줄임을 늘 말씀하셨다.

-한 핏줄, 한 민족임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.

-가: 안녕하세요? 제가 김 선생님 아들입니다.

-나: 반갑네. 핏줄은 속일 수 없다더니 네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.

각별하다 형용사

관계나 태도 등이 보통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다.

-각별한 관계.

-각별한 관심.

-각별한 사이.

-각별한 애정.

-각별하게 생각하다.

-각별하게 조심하다.

-주의가 각별하다.

-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.

-김 교수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재능이 많은 승규를 각별하게 여겼다.

-어려서부터 단짝이었던 지수와 유민이는 여전히 사이가 각별했다.

-가: 환절기라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.

-나: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각별하게 건강에 신경 써야 해.

폐2 명사

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귀찮게 하는 일.

-폐가 되다.

-폐가 많다.

-폐를 덜다.

-폐를 끼치다.

-승규는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이웃에게 폐를 끼쳤다.

-민준이는 잠든 룸메이트에게 폐가 될까 봐 까치발을 들고 걸었다.

-가: 식당에서는 조용히 하렴.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잖니.

-나: 네, 죄송해요.

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일이나 현상.

-폐가 생기다.

-폐를 극복하다.

-폐를 날다.

-폐를 막다.

-폐를 만들다.

-폐를 면하다.

-폐를 방지하다.

-폐를 없애다.

-폐를 저지르다.

-폐를 지적하다.

-회사의 무분별한 투자가 예산 낭비의 폐를 초래했다.

-직원들은 족벌 경영이 회사에 많은 폐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.

-가: 선생님, 사교육비 증가가 낳은 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
-나: 우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.

노총각 명사

결혼할 나이를 훨씬 넘겼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.

-나이 많은 노총각.

-노총각 아저씨.

-노총각으로 살다.

-노총각으로 지내다.

-노총각인 삼촌은 주말마다 선을 보느라 바쁘다.

-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노총각으로 살고 있다.

-가: 김 부장님은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?

-나: 응. 노총각이셔.

외동딸 명사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다른 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딸.

- 늦둥이 외동딸.
- 무남독녀 외동딸.
- 외동딸이 있다.
- 외동딸을 기르다.
- 외동딸을 낳다.
- 유민이는 외동딸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.
- 외동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쩐지 허전했다.
- 가: 아빠, 나 저 옷 사 주세요!
- 나: 그래. 우리 외동딸이 사 달라는데 당연히 사 줘야지.

(귀엽게 이르는 말로) 다른 딸 없이 하나뿐인 딸.

- 외동딸이 귀엽다.
- 외동딸을 기르다.
- 외동딸을 낳다.
- 외동딸을 사랑하다.
- 외동딸을 예뻐하다.
- 아들만 둘 기르던 우리 부부는 늦둥이로 외동딸을 낳았다.
- 지수는 4남매 중 막내인데다 외동딸이어서 부모님과 오빠들의 귀여움을 받았다.
- 가: 유민이는 남자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 노네?
- 나: 응. 오빠들만 있는 외동딸이라서 남자들하고 같이 컸거든.

양체 명사

(낮잡아 이르는 말로)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.

- 양체 운전자.
- 양체같이 굴다.
- 민준이는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체이다.
- 고속 도로가 막힐 때 갓길을 주행하는 양체 운전자들이 있다.
- 자기 집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몰래 버리는 양체 같은 사람들이 많다.

마누라 명사

(친근하게 이르는 말로) 중년이 넘은 아내.

-우리 마누라.

-마누라 속을 썩이다.

-마누라를 얻다.

-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.

-마누라 발바닥이 갈라진 것을 보니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.

-가: 요즘 자꾸 마누라의 눈치를 보게 돼.

-나: 무슨 잘못된 거 있어?

(속된 말로) 중년이 넘은 여자.

-옆집 마누라.

-주인집 마누라.

-젊은 마누라.

-정자 밑에서 늙은 마누라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.

-옆집 마누라는 입담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.

낮익다 형용사

전에 보거나 만난 적이 있어 알아볼 수 있거나 친숙하다.

-낮익은 사람.

-낮익은 표정.

-얼굴이 낮익다.

-처음 가는 모임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낮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.

-그녀의 얼굴이 낮익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학 동창이었다.

-가: 얼굴이 상당히 낮익은데 저 배우 누구지?

-나: 몰라? 원래 가수였는데 배우로 데뷔했잖아.

전에 본 적이 있어 눈에 익거나 익숙하다.

-낮익은 거리.

-낮익은 일.

-낮익은 풍경.

-낮익어 보이다.

-눈에 낮익다.

-외국에 나가서 국내 기업의 낮익은 간판을 보니 반가웠다.

-사진 속의 풍경이 낮익다 했더니 내가 살던 동네를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다.

-가: 이 동네는 전에 와 본 적도 없는데 상당히 낮익어 보이네.

-나: 요새 아파트 단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.

티격태격하다 동사

서로 뜻이 맞지 않아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가리다.

-티격태격하는 사이.

-금세 티격태격하다.

-매일 티격태격하다.

-티격태격하며 싸우다.

-티격태격하며 다투다.

-아이들은 서로 잘 놀다가도 금세 티격태격했다.

-어린 시절 나는 형과 매일 티격태격했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다.

-가: 가게 주인하고 손님하고 시비가 붙은 모양이야.

-나: 아까부터 계속 티격태격하던데 이러다 큰 싸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

다그치다 동사

일이나 행동 등을 빨리 끝내려고 재촉하다.

-다그쳐 일하다.

-일손을 다그치다.

-작업을 다그치다.

-진행을 다그치다.

-처리를 다그치다.

-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손을 다그쳐 겨우 시간 안에 일을 끝냈다.

-나로서는 일을 다그쳐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감을 지키지 못했다.

-가: 서둘러서 내일까지는 반드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-나: 일을 다그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여유를 갖고 하세요.

지치거나 힘든 몸을 다시 가누어 움직이다.

-몸을 다그쳐 걸어가다.

-굳은 몸을 다그치다.

-맥 빠진 몸을 다그치다.

-지친 몸을 다그치다.

-피곤한 몸을 다그치다.

-나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친 몸을 다그쳐 저녁 준비를 했다.

-환자는 굳어 버린 몸을 다그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.

-가: 어머, 지수는 아프다며 학원에 왔네?

-나: 시험이 모레잖아. 아픈 몸을 다그쳐 겨우 왔나 봐.

일이나 행동 등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다.

-다그쳐 묻다.

-경찰이 다그치다.

-도둑을 다그치다.

-범죄자를 다그치다.

-죄인을 다그치다.

-자백하라고 다그치다.

-반장은 숙제를 어서 제출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기 시작했다.

-어머니는 거짓말을 하는 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치셨다.

-나갈 준비를 끝낸 아버지는 빨리 출발하자고 어머니를 다그치셨다.

-가: 범인이 어떻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?

-나: 형사가 자백하라고 다그쳤더니 결국 사실을 말하더라.

으르다 동사

- 무서운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주다.
- 으르는 말투.
 - 으르는 표정.
 - 으르는 행동.
 - 동생을 으르다.
 - 아이를 으르다.
 - 친구를 으르다.
 - 무섭게 으르다.
- 강도는 길 가던 시민을 올려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.
- 아이를 무서운 표정으로 으르자 금세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.
- 가: 울지 마. 너를 으를 생각은 아니었어.
- 나: 내가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있다고 겁을 주고 그래.

노처녀 명사

- 결혼할 나이를 훨씬 넘겼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.
- 나이 많은 노처녀.
 - 노처녀가 결혼하다.
 - 노처녀가 되다.
 - 노처녀가 시집가다.
 - 노처녀로 살다.
- 노처녀인 우리 언니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에 집안 어른들이 크게 기뻐하셨다.
- 최 과장은 일에만 집중하느라 결혼이 늦어진 노처녀다.
- 가: 요즘 정말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것 같아.
- 나: 맞아. 예전에는 이십 대 후반이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.

과부 명사

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 없이 사는 여자.

-과부가 되다.

-과부로 살다.

-과부로 지내다.

-그 과부는 남편 없이도 홀로 다섯 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.

-그 아주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으나 재혼하지 않고 지금껏 과부로 지낸다.

-가: 유민이가 결혼한 지 일 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더라.

-나: 저런, 그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다니 참 안됐다.

노릇 명사

(낮잡아 이르는 말로) 직업으로 하는 일이나 직책을 맡아 하는 역할.

-공무원 노릇.

-배우 노릇.

-상사 노릇.

-선생 노릇.

-점원 노릇.

-그는 평생 연극 무대밖에 모르고 배우 노릇을 하며 살았다.

-지수는 상사에게 말단 공무원 노릇은 하지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.

-가: 선생 노릇 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.

-나: 그래도 교사만 한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래.

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이나 태도.

-동생 노릇.

-부모 노릇.

-사람 노릇.

-선배 노릇.

-언니 노릇.

-형 노릇.

-효자 노릇.

-부모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승규가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한다.

-나는 아이를 낳은 뒤에야 부모 노릇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.

-가: 선배 노릇 하기 참 힘들다.

-나: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?

일의 상황 또는 형편.

-꽤썩할 노릇.

-귀신이 곡할 노릇.

-기가 찰 노릇.

-답답할 노릇.

-미칠 노릇.

-못할 노릇.

-알다가도 모를 노릇.

-어제까지 잘 보관해 둔 보석들이 없어지다니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.

-아무 잘못도 없는 내 동생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.

-가: 아까까지 있던 게 도대체 어디로 갔니?

-나: 그러게 말이야.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.

또래 명사

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. 또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.

-우리 나이 또래.

-같은 또래.

-또래 모임.

-또래 집단.

-또래 친구.

-우리 나이 또래라면 이 노래는 당연히 알 것이다.

-민준은 또래 친구들과 놀지 않고 나이 많은 형, 누나들과 어울렸다.

-가: 난 또래끼리 지내는 게 편해.

-나: 나도. 수준이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하잖아.

권위적2 관형사

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.

-권위적 사고.

-권위적 의식.

-권위적 자세.

-권위적 조직.

-권위적 태도.

-그 부모는 사사건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권위적 태도를 보였다.

-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먼저 권위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.

-우리 부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권위적 분위기에 신입 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.

-가: 김 대리는 승진하더니 거만해진 것 같아.

-나: 감투를 쓰면 사람한테 권위적 태도가 생기나 봐.

대6 명사

한집안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과 계보.

-대가 끊기다.

-대가 끊어지다.

-대가 이어지다.

-대를 끊다.

-대를 잇다.

-친구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집의 대가 끊어졌다.

-시어머니는 내게 어서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으라고 잔소리를 하셨다.

-가: 그 집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면?

-나: 응. 대를 못 이을 수도 있다고 그 집 어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래.

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.

-고구려 대.

-고려 대.

-백제 대.

-조선 대.

-통일 신라 대.

-훈민정음은 조선의 세종 대왕 대에 창제되었다.

-김 교수는 이 유물이 고구려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.

-가: 언제부터 한국에 유교가 이렇게 깊게 뿌리내리게 됐지?

-나: 조선 대에 들어와서 유학이 발전했다고 알고 있어.

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의 한 단계.

-고조할아버지 대.

-아들 대.

-아버지 대.

-증조할아버지 대.

-할아버지 대.

-큰 부자였던 박 씨네는 박 씨의 아들 대에서 몰락하게 되었다.

-할아버지인 김 회장이 시작한 사업은 손자의 대에 가서 크게 성공하였다.

-가: 이 집은 우리 고조할아버지 대에 지어졌어.

-나: 정말 오래되었구나.

부모가 속한 시대와 그 자녀가 속한 시대의 차이인 약 삼십 년 정도 되는 기간.

가문 명사

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. 또는 그 사회적 지위.

-김씨 가문.

-박씨 가문.

-가문의 명예.

-훌륭한 가문.

-가문의 영광.

-가문을 빛내다.

-가문을 일으키다.

-가문을 흐리다.

-가문을 욕되게 하다.

-우리 가문은 대대로 교육자를 배출한 집안이다.

-아버지께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늘 바르게 살아오셨다.

-어머니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로는 드물게 유학까지 다녀오셨다.

-가: 아버지, 저 이번 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.

-나: 정말 장하구나. 네가 우리 가문을 빛냈구나.

새댁 명사

(높이는 말로) 새색시.

-옆집 새댁.

-막 결혼한 새댁.

-새댁의 살림 솜씨.

-새댁의 요리.

-새댁이 들어오다.

-새댁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웃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.

-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새댁의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.

-가: 새댁, 오늘은 남편 마중 안 나가?

-나: 네, 오늘은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라 시어머님 댁으로 바로 가려고요.

벗 명사

비슷한 나이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.

-오래된 벗.

-참된 벗.

-벗이 되다.

-벗을 두다.

-벗을 만나다.

-벗을 사귀다.

-어른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과 벗을 하면 보탬이 된다고 나에게 이르렀다.

-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자란 지수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벗이다.

-가: 너희 둘은 어떻게 벗이 되었니?

-나: 모임에서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더 친해졌어요.

(비유적으로) 늘 가까이 두고 지내는 것.

-벗으로 삼다.

-나는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 자연을 벗 삼아 지낸다.

-그는 우울할 때면 음악을 벗으로 삼아 술을 마시곤 했다.

-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에게 있어서 카메라는 평생의 벗이다.

무례 명사

말이나 행동에 예의가 없음.

-무례를 꾸짖다.

-무례를 범하다.

-무례를 사과하다.

-무례를 용서하다.

-민준이는 선생님께 대드는 무례를 범해서 크게 혼났다.

-부모가 아이의 무례를 보고도 눈감는 일이 잦아지자 아이는 점점 버릇이 나빠졌다.

-가: 그 청년이 어르신께 자기 잘못을 사과했어?

-나: 응. 그래서 어르신이 무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.

끈끈하다 형용사

끈기 있는 물질이 묻어 있어서 피부에 자꾸 들러붙는 느낌이 있다.

-끈끈한 가래침.

-끈끈한 송진.

-끈끈하게 녹다.

-거미줄이 끈끈하다.

-반죽이 끈끈하다.

-끈끈한 진흙이 종아리에 달라붙었다.

-아이는 두꺼운 종이에 끈끈한 풀을 발라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.

-가: 식탁이 왜 이렇게 끈끈하지?

-나: 방금 전에 유민이가 콜라를 쏟았거든.

피부에 습기가 느껴져 불쾌하다.

-끈끈한 공기.

-끈끈한 바닷바람.

-끈끈하고 불쾌한 더위.

-등이 끈끈하다.

-땀이 배어 끈끈하다.

-바닷바람 탓에 끈끈한 소금기가 그의 얼굴에 묻어났다.

-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겁고 끈끈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.

-손바닥에 끈끈하게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.

-가: 오늘따라 공기가 끈끈한지 얼굴이 심하게 번들거리네.

-나: 여름이어서 날이 매우 습해.

서로의 정이 아주 강하고 관계가 친밀하다.

-끈끈한 관계.

-끈끈한 관심.

-끈끈한 유대감.

-끈끈한 정.

-인연이 끈끈하다.

-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끈끈한 믿음이 있다.

-단원들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와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단원 모임에 참석하면 기분이 좋다.

-나는 고등학교 동창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끈끈한 관계인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.

-가: 이 모임은 정말 오래 유지되는군요.

-나: 선배와 후배들 간의 관계가 끈끈하거든요.

뻔히 바라보는 시선이 기분 나쁘다.

-끈끈한 눈길.

-끈끈한 눈빛.

-끈끈한 시선.

-끈끈하게 바라보다.

-끈끈하게 쳐다보다.

- 뒤를 따라오는 끈끈한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.
-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 끈끈한 시선을 던져 너무나 불쾌했어요.
- 그가 몰래 보내는 시선의 끈끈함을 그녀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.
- 가: 내가 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끈끈하게 쳐다봐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.
- 나: 그 사람 진짜 꼴불견이다.

예전 명사

꽤 시간이 흐른 지난날.

-예전 모습.

-예전 상태.

-예전 그대로.

-예전과 다름없다.

-예전 같지 않다.

-나이가 든 그 선수는 세월 탓인지 실력이 예전만 못했다.

-그 음식점은 맛있다고 소문이 나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다.

-가: 오랜만이다. 우리 이십 년 만인가?

-나: 넌 어렸을 때랑 얼굴이 똑같다. 어쨌 예전 모습 그대로니?

피차 명사

이쪽과 저쪽의 양쪽.

-피차가 마찬가지로.

-그때의 만남은 피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.

-피차 얼굴을 마주 보기가 싫을 텐데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.

-두 사람이 모두 영화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피차 통하는 부분이 있다.

-가: 그렇게 쉽게 제 부탁을 거절을 할 수 있어요?

-나: 입장이 곤란하기는 피차가 마찬가지예요.

장례 명사

사람이 죽은 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. 또는 그런 의식.

-장례 절차.

-장례 행렬.

-장례를 지내다.

-장례를 치르다.

-나는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도 아내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.

-갑자기 상을 당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장례 절차에 따라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했다.

-가: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도 편찮으시다면서?

-나: 응.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도 힘들어하셨어.

주례 명사

결혼식 등에서 식을 맡아 진행하는 일.

-결혼식 주례.

-약혼식 주례.

-주례를 맡다.

-주례를 보다.

-주례를 부탁하다.

-주례를 서다.

-정 교수는 제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게 되었다.

-지수는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었다.

-가: 벌써 우리 약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.

-나: 응. 목사님께 우리 약혼식에 주례를 서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.

결혼식 등에서 식을 맡아 진행하는 사람.

-결혼의 주례.

-주례를 찾다.

-주례로 내세우다.

-주례로 모시다.

-주례의 앞에 서다.

-예식이 모두 끝나고 주례가 두 사람의 성혼을 선포했다.

-주례는 신랑 신부에게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해 주었다.

-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결혼식 주례로 모시기로 했다.

-가: 오늘 결혼식 정말 멋졌어.

-나: 응. 특히 주례 선생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.

환갑 명사

사람이 태어난 지 만 육십 년이 되는 예순 번째 생일.

-아버지의 환갑.

-할머니의 환갑.

-환갑이 되다.

-환갑이 지나다.

-환갑을 맞이하다.

-할머니는 환갑이 넘은 연세에도 아가씨처럼 옷을 입으신다.

-어머니께서는 환갑도 안 된 나이에 손주를 보았다며 기뻐하셨다.

-가: 할아버지,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?

-나: 나야 올해가 환갑이지.

고인2 명사

죽은 사람.

-고인의 뜻.

-고인의 유품.

-고인의 장례.

-고인을 그리워하다.

-고인을 기리다.

-고인을 기억하다.

-고인을 애도하다.

-고인을 추억하다.

-우리는 무덤 앞에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.

-언니는 이미 고인이 된 형부를 잊지 못해 여태껏 혼자 살고 있다.

-가: 고인 생전에 남기신 말씀은 없습니까?

-나: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.

여사 명사

(높이는 말로) 결혼한 여자.

-김 여사.

-박 여사.

-이 여사.

-김 여사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남편을 불렀다.

-우리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사로 불린다.

-가: 오늘 모임에 박 여사도 나오시려나?

-나: 둘째 아들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.

(높이는 말로)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.

-박지수 여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힘쓴 공으로 훈장을 받았다.

-대통령 부인인 김유민 여사는 자선 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.

기만 명사

남을 속임.

-기만 전술.

-기만 행위.

-기만을 당하다.

-기만을 하다.

-기만에 차다.

-나는 친구에게 기만을 당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었다.

-대법원은 담배가 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.

-가: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.

-나: 그런 기만에 찬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.

차례2 명사

추석이나 설날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.

-차례를 모시다.

-차례를 준비하다.

-차례를 지내다.

-추석 아침, 우리는 차례를 지낸 후 성묘를 하러 갔다.

-부모님은 차례 때 쓸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하셨다.

-가: 오늘은 일찍 집을 나서시네요.

-나: 명절이니 차례를 모시러 가요.

경청 명사

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음.

-상대에 대한 경청.

-경청을 하는 자세.

-경청을 하는 태도.

-상대방의 말에 대한 경청이 없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다.

-나는 경청을 잘하지 않는 사람과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.

등지다 동사

서로 사이가 나빠지다.

-등진 관계.

-남편과 등지다.

-이웃과 등지다.

-친구와 등지다.

-서로 등지다.

-그녀는 오래전에 남편과 등지고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.

-형제는 유산 상속을 두고 싸운 끝에 결국 서로 등지게 되었다.

-가: 왜 승규를 등지게 되었어?

-나: 승규가 나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.

등 뒤에 두다.

-문을 등져 앉다.

-등지고 돌아앉다.

-벽을 등지고 서다.

-불빛을 등지다.

-산을 등지다.

-승규는 불빛을 등지고 선 남자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.

-그 아파트는 산을 등지고 강을 내려다보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.

-가: 책상을 어디로 배치할까요?

-나: 문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놓아 주세요.

관계를 끊고 멀리하거나 떠나다.

-고향을 등지다.

-농촌을 등지다.

-모임을 등지다.

-조국을 등지다.

-집을 등지다.

-승규는 도시로 가서 성공할 것을 다짐하며 고향을 등졌다.

-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고 있는 추세이다.

-가: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.

-나: 그만큼 결심이 크다는 것이겠지.

웅기종기 부사

크기가 다른 작은 것들이 고르지 않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.

-웅기종기 늘어서다.

-웅기종기 모이다.

-웅기종기 붙다.

-웅기종기 앓다.

-산 아래에는 집들이 웅기종기 붙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.

-카페 안에는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다.

-가: 점심시간이니 잔디밭에 앉아 편하게 식사를 하죠.

-나: 우리 너무 흠어져 앉지 말고 웅기종기 모여서 먹읍시다.

따돌리다 동사

싫거나 싫은 사람을 따로 떼어 멀리하거나 괴롭히다.

-동료를 따돌리다.

-사람을 따돌리다.

-친구를 따돌리다.

-집단으로 따돌리다.

-계속 따돌리다.

-그 아이는 반 친구 따돌리는 일을 취미 삼아 하는 학교의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.

-민준이는 싫어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동생이 받게 해 친구를 따돌렸다.

-가: 나만 따돌리고 너희끼리만 놀러 간 거야?

-나: 아니야. 어제 네가 집안일이 있다고 일찍 들어갔잖아.

뒤쫓는 사람이 따라잡지 못할 만큼 간격을 벌려 앞서 나가다.

-감시를 따돌리다.

-미행을 따돌리다.

-선수를 따돌리다.

-차를 따돌리다.

-완전히 따돌리다.

-힘겹게 따돌리다.

-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범인은 골목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.

-우리 팀 선수는 바짝 따라오는 선수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.

시선이나 화제 등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피하다.

-눈을 따돌리다.

-시선을 따돌리다.

-질문을 따돌리다.

-추궁을 따돌리다.

-화제를 따돌리다.

-민준이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학교 밖으로 몰래 나가 버렸다.

-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말다툼이 생기자 유민이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화제를 따돌렸다.

집사람 명사

(겸손하게 이르는 말로) 자기 아내.

- 알뜰한 집사람.
- 집사람이 고생하다.
- 집사람을 아끼다.
- 집사람과 싸우다.
- 집사람과 의논하다.
- 집사람에게 전화하다.
- 아이들 교육 문제는 집사람과 상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.
-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.
- 가: 요즘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가시네요?
- 나: 네,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일찍 가 봐야 합니다.

결별 명사

관계나 사귀를 끊고 헤어지는 것.

- 결별 선언.
- 결별 위기.
- 결별의 이유.
- 결별을 당하다.
- 결별을 통보하다.
- 나는 연인과 크게 싸우고 결별을 했다.
- 승규는 돈 문제로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결별을 선언했다.
- 가: 인기 연예인 커플이 결별을 했다는 소문 들었니?
- 나: 응, 둘이 잘 어울렸는데 안타까워.

뒷바라지 명사

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.

-가족 뒷바라지.

-남편 뒷바라지.

-아들 뒷바라지.

-자식 뒷바라지.

-엄마의 뒷바라지.

-뒷바라지에 힘쓰다.

-어머니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다.

-지수는 수험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직장을 휴직했다.

-가: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에 고생이 많으셨죠?

-나: 네. 새벽에 나가는 아이 밥을 해 먹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

사교2 명사

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.

-사교 모임.

-사교의 장.

-사교의 범위가 넓다.

-사교가 늘다.

-사교를 하다.

-학부모들은 따로 사교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유지해 나갔다.

-지수는 사교에 능해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을 알고 있다.

-가: 기숙사에는 많은 사교 모임이 있어.

-나: 그래? 난 노래도 배우고 사람도 사귄 수 있는 모임에 가입하고 싶어.

우대 명사

특별히 잘 대우함. 또는 그런 대우.

-노인 우대.

-극진한 우대.

-우대 금리.

-우대 정책.

-우대 조건.

-우대 조치.

-우대를 받다.

-우대를 하다.

-실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.

-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 경험을 우대 조건으로 삼고 있다.

-가: 이 식당에서 노인 우대를 한다고 들었는데요.

-나: 네, 저희는 육십 세 이상 노인분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

대9 의존 명사

사람의 나이를 십 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.

-십 대 청소년.

-이십 대 청년.

-삼십 대 여자.

-사십 대 아저씨.

-오십 대 남자.

-그 가수는 십 대 소녀들에게 인기가 많다.

-어제 길에 칠십 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다.

-가: 승규가 이번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며?

-나: 응, 이십 대에 박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하지?

가계나 지위를 이어받은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.

-삼 대 왕.

-사 대 회장.

-세종 대왕은 조선의 사 대 임금이다.

-이번 달 말에 십오 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.

-김 사장이 우리 모임의 칠 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.

-가: 이 도자지가 너희 집 가보라고?

-나: 응, 도자기는 우리 집안에서 오 대째 내려오는 거거든.

가족이나 민족의 이어진 세대의 수를 세는 단위.

-요새는 부모님과 자식 이 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.

-이 아파트는 좁아서 이 대가 함께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.

-이 음식점은 주인 내외와 주인 아들 내외, 이렇게 이 대가 같이 운영하고 있다.

-가: 승규 씨는 할아버지, 부모님, 승규 씨 자녀까지 다 함께 사는 대가족이래.

-나: 그럼 총 사 대가 같이 사는 거네.

혼인 명사

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.

-혼인 관계.

-혼인 생활.

-혼인 잔치.

-혼인을 승낙하다.

-혼인을 약속하다.

-두 사람은 혼인 후 오 년 만에 처음 아이를 가졌다.

-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.

-부모님께서서는 오랜 반대 끝에 드디어 여자 친구와의 혼인을 허락하셨다.

피로연 명사

결혼이나 출생 등의 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푸는 잔치.

-피로연이 시작되다.

-피로연을 베풀다.

-피로연을 열다.

-피로연에 가다.

-피로연에 초대하다.

-노 작가는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출판 기념 피로연을 가졌다.

-피로연에 온 손님들은 어렵게 얻은 아이의 첫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.

-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 모인 하객들에게 신랑 신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-가: 피로연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?

-나: 피로연은 식이 끝나는 대로 같은 건물 2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

대들다 동사

윗사람에게 맞서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반항하다.

-부모에게 대들다.

-선생님에게 대들다.

-어른에게 대들다.

-감히 대들다.

-마구 대들다.

-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드는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곳은 없다.

-윗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대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.

-가: 김 선생님,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?

-나: 지각한 학생을 야단쳤더니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고 대들더라고요.

성인2 명사

지혜와 인격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.

-위대한 성인.

-성인들의 가르침.

-성인이 되다.

-성인을 따르다.

-성인을 본받다.

-현인들도 옛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구한다.

-옛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.

-한국에서는 부처와 예수, 두 성인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.

-가: 성인의 사상은 후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

-나: 네, 그들의 지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니까요.

천주교에서, 신앙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칭호.

-성인으로 모시다.

-성인으로 선포되다.

-성인으로 추대되다.

-교황은 서거하자 성인으로 추대되었다.

-그 신부는 자기를 희생하며 교리를 실천하여 성인으로 추대되었다.

-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.

본명 명사

가명이나 별명이 아닌 원래 이름.

-본명이 공개되다.

-본명을 감추다.

-본명을 밝히다.

-본명을 이야기하다.

-본명으로 소개하다.

-오 작가는 자기가 누구인지 감추기 위해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썼다.

-나는 촌스러운 본명 대신 지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.

-가: 진짜 이름이 마이클이십니까?

-나: 아니요. 본명은 김민준입니다.

교제 명사

서로 사귀며 가깝게 지냄.

-이성 교제.

-건전한 교제.

-교제를 시작하다.

-교제를 하다.

-교제를 허락하다.

-민준이와 지수는 오 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하기로 결심했다.

-오빠는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이성 교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.

-가: 우리 집 딸아이가 벌써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.

-나: 요즘 애들이야 워낙 빨리 이성 교제를 시작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

어떤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과 사귀어 가깝게 지냄.

-사업상의 교제.

-교제를 끊다.

-교제를 이어 가다.

-교제를 하다.

-교제에 애쓰다.

-나는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박 사장과의 교제에 힘써 왔다.

-김 의원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교제를 이어 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혔다.

-가: 유학 생활 동안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

-나: 외국인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자 했습니다.

신세1 명사

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나 미안하고 실례가 되는 일.

-신세가 많다.

-신세를 갚다.

-신세를 끼치다.

-신세를 입다.

-신세를 지다.

-신세에 보답하다.

-유민이는 버스가 끊겨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.

-미국에 여행을 간 민준이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사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다.

-가: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?

-나: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끼치거나 예의 없게 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오누이 명사

오빠와 여동생.

-사촌 오누이.

-이웃집 오누이.

-다정한 오누이.

-사이 좋은 오누이.

-오누이 관계.

-오누이 사이.

-오누이로 지내다.

-두 사람이 오누이처럼 닮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다.

-사고로 부모를 잃은 오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다.

-가: 저 두 사람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인가 봐요.

-나: 아니에요. 우리 동네에서 사이 좋기로 소문난 오누이예요.

신의 명사

믿음과 의리.

-신의가 두렵다.

-신의가 있다.

-신의를 저버리다.

-신의를 지키다.

-그 회사는 우리와 오랫동안 신의를 지키며 거래해 온 좋은 거래처이다.

-회사 측은 약속과 달리 정리 해고를 감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.

-가: 승규한테 그렇게 큰돈을 꺼 줬단 말이야? 제정신이냐?

-나: 나도 고민했지만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.

야단치다 동사

소리를 높여 매우 심하게 꾸짖다.

-부모가 야단치다.

-선생님이 야단치다.

-아이를 야단치다.

-책임자를 야단치다.

-학생을 야단치다.

-남편은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엄하게 야단쳤다.

-선생님은 자상하신 분이지만 학생들을 야단칠 때면 누구보다 엄하고 무서웠다.

-가: 아이에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.

-나: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혼나야죠.

감언이설 명사

남을 속이기 위해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황이 이로운 것처럼 꾸민 말.

-현란한 감언이설.

-아첨과 감언이설.

-감언이설에 속다.

-어머니께서는 감언이설에 능숙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다.

-현명한 국민이라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, 그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.

-가: 지수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며?

-나: 응.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그만 큰돈을 날렸어.

군4 의존 명사

남자인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.

-김 군.

-민준 군.

-최 군.

-한승규 군.

-내가 승규 군에게 많은 폐를 끼쳤구먼. 미안하네.

-이 군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말해 보게.

-이번 주말에 김민준 군과 박유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.

-가: 박 군,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나?

-나: 아, 선생님. 과 사무실에 볼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중이에요.

서먹하다 형용사

익숙하거나 친하지 아니하여 어색하다.

-서먹한 분위기.

-서먹한 사이.

-관계가 서먹하다.

-선배와 서먹하다.

-서로 서먹하다.

-새 학기가 되어 처음 만난 아이들은 아직 서먹한 분위기이다.

-나는 겨우 한두 번 만난 후배에게 말을 놓기가 서먹했다.

-가: 너 왜 요즘 민준이랑 서먹하게 지내니?

-나: 실은 얼마 전에 크게 싸웠거든.

상의2 명사

서로 의견을 주고받음.

-상의가 되다.

-상의가 진행된다.

-상의가 이루어지다.

-상의를 거치다.

-상의를 드리다.

-상의를 하다.

-나는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대해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다.

-우리는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정책을 결정하였다.

-가: 아무래도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.

-나: 하지만 어떻게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?

연하 명사

자기보다 나이가 적음. 또는 그런 사람.

-두 살 연하.

-삼 년 연하.

-연하의 남자.

-연하의 남자 친구.

-연하와 사귀다.

-유명한 가수인 김 씨는 열두 살 연하의 남자 친구를 공개했다.

-자신보다 세 살이 어린 여자 친구를 둔 박 씨는 연하의 여자 친구를 잘 챙겨 준다.

-가: 여자 친구는 몇 살이야?

-나: 나보다 두 살 연하야.

천생연분 명사

- 하늘이 정해 준 것처럼 잘 맞는 부부의 인연.
- 천생연분의 궁합.
 - 천생연분의 인연.
 - 천생연분을 만나다.
 - 천생연분과 결혼하다.
 - 우리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예요.
 - 지수와 승규가 마음이 잘 맞는 걸 보니 천생연분이 아닐까 생각했다.
 - 가: 남편과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졌다면서?
 - 나: 응. 서로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어.

길들이다 동사

- 짐승이 야생의 성질을 잃어서 사람이 부리기 좋게 되다.
- 사육사가 길들이다.
 - 강아지를 길들이다.
 - 고양이를 길들이다.
 - 동물을 길들이다.
 - 새를 길들이다.
 - 온순하게 길들이다.
 - 인간은 원래 야생 동물이었던 개를 길들여서 애완동물로 삼았다.
 - 사육사가 돌고래 쇼를 준비하고자 먹이를 이용하여 돌고래를 길들이고 있다.
 - 가: 사나운 맹수도 온순하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?
 - 나: 인간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야수의 성질이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고 해.
-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다.
- 길들인 기계.
 - 길들인 물건.
 - 새것을 길들이다.
 - 입맛을 길들이다.
 - 요리사는 어떤 재료도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도록 칼을 잘 길들였다.
 - 민준이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음식에 입맛을 길들이려고 노력했다.
 - 가: 왜 기자들은 독재자의 횡포에 대해 기사를 쓰지 않는 거야?
 - 나: 독재 정권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길들였으니까.

여의다 동사

부모나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하다.

-부모를 여의다.

-아내를 여의다.

-아버지를 여의다.

-사고로 여의다.

-어릴 적에 여의다.

-일찍 여의다.

-나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.

-사고로 남편을 여윈 아주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뒤이어 세상을 떠났다.

-가: 부모님을 여의고 났더니 후회되는 일이 많네요.

-나: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.

딸을 결혼시키다.

-딸을 여의다.

-막내를 여의다.

-큰아이를 여의다.

-늦게 여의다.

-어렵게 여의다.

-아버지는 막내딸을 여의는 것을 펍 섭섭해하셨다.

-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믿음직한 사위한테 여의어서 마음이 놓였다.

-가: 자식들을 다 여의셨으니 이제 한 시름 놓으시겠어요.

-나: 그러게요, 인생에서 큰 숙제 끝낸 것 같네요.

멀리 떠나보내거나 잃다.

-걱정을 여의다.

-근심을 여의다.

-번뇌를 여의다.

-번민을 여의다.

-병을 여의다.

-어머니는 암을 여의고 나서도 언제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.

-스님을 수양을 통해 고뇌를 여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고 하셨다.

-나는 등산을 하는 동안 만큼은 세상의 근심을 모두 여의는 기분이었다.

야단맞다 동사

꾸지람을 듣다.

-선생님께 야단맞다.

-엄마에게 야단맞다.

-자주 야단맞다.

-크게 야단맞다.

-호되게 야단맞다.

-나는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야단맞았다.

-아이는 엄마에게 크게 야단맞아 한동안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.

-가: 어제는 왜 상사한테 야단맞은 거예요?

-나: 제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.

이상형 명사

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.

-완벽한 이상형.

-이상형을 만나다.

-이상형을 찾다.

-이상형에 가깝다.

-이상형에 맞다.

-나의 이상형은 내 어머니와 같은 여자다.

-지수는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의 사람을 만나 마음이 설렘.

-가: 넌 어떤 사람을 결혼 이상형으로 생각하니?

-나: 자상한 성격에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면 좋겠어.

조의금 명사

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.

-조의금을 걷다.

-조의금을 내다.

-조의금을 드리다.

-조의금을 모으다.

-조의금을 전하다.

-조의금으로 드리다.

-우리는 받은 조의금으로 장례 비용의 대부분을 치렀다.

-나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에 슬퍼하는 유가족에게 조의금을 전했다.

-가: 부장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군요.

-나: 저런, 일단 조의금은 각자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?

권위적1 명사

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.

-권위적인 상사.

-권위적인 사회.

-권위적인 집단.

-권위적인 태도.

-권위적으로 말하다.

-권위적으로 대하다.

-권위적인 김 씨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.

-권위적인 상사는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.

-가: 점심 메뉴 고르는 데에도 부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족겠어요.

-나: 부장님이 너무 권위적이셔서 사소한 의견을 말하는 것도 힘든가 보네요.

성묘 명사

조상의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돌봄. 또는 그런 일.

-추석 성묘.

-성묘를 가다.

-성묘를 다녀오다.

-성묘를 하다.

-아버지는 해마다 성묘를 가셔서 할아버지 산소를 정성껏 돌보신다.

-나는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나서기 전에 성묘 드릴 음식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.

-가: 성묘에 더 필요한 건 다 챙겼지요?

-나: 참, 산소를 좀 손봐야 할 테니 장갑도 넣어요.

단결 명사

여러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합침.

-단결이 되다.

-단결이 어렵다.

-단결을 강조하다.

-단결을 꾀하다.

-단결을 다지다.

-단결을 다짐하다.

-단결을 하다.

-단결로 극복하다.

-우리 축구 팀은 체육 대회에서 완벽한 단결로 우승을 거머쥐었다.

-우리나라는 국민적 단결로 1997년에 닥친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.

-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시켰다.

왕따 명사

따돌리는 일.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.

-왕따 문제.

-왕따가 되다.

-왕따가 생기다.

-왕따를 시키다.

-왕따를 당하다.

-그 아이는 첫 수업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해 학기 내내 왕따로 지냈다.

-가: 재는 왜 혼자 놀고 있지?

-나: 아무래도 저 반에 왕따가 있는 것 같아.

내치다 동사

내던져 버리다.

-물건을 내치다.

-밥상을 내치다.

-손을 내치다.

-밀어 내치다.

-아무 데나 내치다.

-지수는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내치고 말도 없이 가 버렸다.

-밥을 먹다가 아내와 다툰 승규는 밥상을 내쳐 버리고 문을 광 닫고 나왔다.

-가: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?

-나: 민준이가 화가 났는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서 내쳐 가지고 이렇게 됐어.

물리치거나 강제로 내쫓다.

-동료를 내치다.

-마음을 내치다.

-사람을 내치다.

-사랑을 내치다.

-친구를 내치다.

-바닥에 내치다.

-밖으로 내치다.

-그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내 사랑을 냉정하게 내쳐 버렸다.

-이번 인사 이동은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원들을 다 내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.

-가: 영수는 마음이 참 넓어.

-나: 맞아.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도 내치지 않고 다 용서해 주더라.

돈독하다 형용사

믿음, 의리, 인정 등이 깊고 성실하다.

-돈독한 사이.

-돈독한 우정.

-신앙이 돈독하다.

-애정이 돈독하다.

-우애가 돈독하다.

-존경심이 돈독하다.

-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의 대통령은 돈독한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.

-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이번 여행은 아이와 부모의 유대감과 사랑을 돈독하게 해 주었다.

-가: 형제 간 사이는 어때요?

-나: 어렸을 땐 거의 매일 싸웠는데 지금은 우애가 돈독해요.

말이 명사

여러 형제자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.

-집안의 말이.

-말이 노릇.

-말이로 태어나다.

-말이들은 대개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다.

-나는 말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.

-가: 부군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많이 적적하시겠어요.

-나: 아무래도 남편이 세상을 하직한 뒤로는 말이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죠.

섬기다 동사

윗사람을 따르고 받들어 모시다.

-부모를 섬기다.

-주인을 섬기다.

-극진히 섬기다.

-그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선배도 깍듯이 섬기는 예의 바른 청년이다.

-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보필하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이다.

-가: 자네 사위가 자네를 그렇게 극진히 섬긴다면서?

-나: 응. 가끔 보면 우리 아들보다 낫더라고.

특별한 존재로 삼아 따르고 받들다.

-부모로 섬기다.

-스승으로 섬기다.

-신으로 섬기다.

-왕으로 섬기다.

-우두머리로 섬기다.

-몇몇 신하들이 모여 왕자를 왕으로 섬길 계획을 세웠다.

-옛날에는 무조건 힘이 센 사람을 집단의 우두머리로 섬기기도 했다고 한다.

-가: 왜 나무 앞에서 인사를 하세요?

-나: 우리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.

회갑 명사

사람이 태어난 지 만 육십 년이 되는 예순 번째 생일.

-아버지의 회갑.

-회갑 무렵.

-회갑이 되다.

-회갑이 지나다.

-회갑을 기념하다.

-회갑을 넘기다.

-회갑을 맞다.

-회갑을 앞두다.

-내 나이 벌써 쉰다섯이니 오 년만 있으면 회갑이다.

-아버지는 회갑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.

-가: 요즘에는 구십까지도 다들 너끈히 살더구나.

-나: 맞아요, 어머니도 이제 회갑이시니 앞으로 삼십 년은 더 사셔야 해요.

동행 명사

함께 길을 감.

-동행 기간.

-동행 취재.

-동행을 하다.

-이번 출장에는 회사 동료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.

-회식을 마치고 나와 집 방향이 같은 김 대리와의 동행을 했다.

-가: 여행지에서 주말에야 돌아온다니 왜 벌써 왔니?

-나: 동행을 했던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어요.

함께 길을 가는 사람.

-여행 동행.

-동행이 있다.

-동행을 구하다.

-동행을 만나다.

-지수는 터미널에서 동행을 만나 고향까지 함께 갔다.

-나는 여름 방학에 유럽 여행을 함께 할 동행을 구하고 있다.

-가: 여기가 빈자리면 앉아도 될까요?

-나: 죄송하지만 제가 동행이 있어서요.

위계질서 명사

직책이나 지위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차례와 순서.

-엄격한 위계질서.

-위계질서 확립.

-위계질서가 엉망이다.

-위계질서가 잡히다.

-위계질서를 강조하다.

-위계질서를 세우다.

-위계질서를 잡다.

-위계질서를 정하다.

-위계질서를 지키다.

-위계질서를 확립하다.

-군대는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확실히 잡혀 있다.

-우리는 엄격한 위계질서 때문에 감히 선배들에게 말대꾸도 하지 못했다.

-가: 요즘도 대학 선후배 사이에 위계질서가 엄격한가?

-나: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.

긴밀하다 형용사

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맞닿아 있다.

-긴밀한 관계.

-긴밀한 협의.

-긴밀하게 묶이다.

-긴밀하게 협력하다.

-사이가 긴밀하다.

-유엔 회원국들은 서로 긴밀한 평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.

-새 상품 출시를 앞두고 제조사와 판매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.

-가: 우리나라는 중국, 일본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.

-나: 응,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.

상견례 명사

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서로 인사하는 일.

-상견례 자리.

-상견례 행사.

-상견례를 가지다.

-상견례를 하다.

-상견례에서 만나다.

-최 감독은 내일 새로 부임한 구단 선수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.

-입학식이 끝나면 곧바로 신입생과 재학생 선배들의 상견례가 있다고 한다.

-가: 새로 오신 사장님은 어떤 분일까?

-나: 상견례 때 첫 대면을 하면 알게 되겠지.

결혼할 남녀의 부모나 가족이 처음 만나 서로 인사하는 일.

-양가 상견례.

-상견례 날짜.

-상견례 자리.

-상견례 장소.

-상견례를 치르다.

-딸의 시부모가 될 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상견례 자리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.

-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결혼 준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

-가: 상견례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어?

-나: 가족들 소개하고 결혼식 날짜랑 예식장 고르는 이야기를 했어.

현모양처 명사

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로운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.

-소문난 현모양처.

-현모양처의 모습.

-현모양처가 되다.

-현모양처를 강조하다.

-현모양처를 내세우다.

-현모양처로 살다.

-그 부인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남편을 섬기는 현모양처이다.

-옛날의 여성상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현모양처로 사는 여성이었다.

-가: 넌 꿈이 뭐야?

-나: 난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현모양처로 살고 싶어.

리더십 명사

지도자로서의 능력.

-강한 리더십.

-타고난 리더십.

-리더십의 부재.

-리더십이 없다.

-리더십이 있다.

-리더십을 발휘하다.

-리더십으로 이끌다.

-민준이는 리더십이 좋아서 이번 학기의 반장으로 선출되었다.

-지도자는 능력과 더불어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어야 한다.

-사장이 직원들을 잘 이끄는 것을 보고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.

-가: 그 회사는 경영난을 어떻게 극복했대요?

-나: 경영자의 타고난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갔대요.

학벌 명사

학교 교육을 받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. 또는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.

- 훌륭한 학벌.
- 학벌이 비교되다.
- 학벌이 좋다.
- 학벌을 따지다.
- 학벌을 내세우다.
- 승규는 자신의 학벌을 내세우며 잘난 척을 했다.
- 우리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학벌보다는 실력을 중요하게 본다.
- 가: 우리 어머니는 학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.
- 나: 당신께서도 좋은 학교를 졸업하셔서 그런가?

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.

- 학벌 과열.
- 학벌 문제.
- 학벌이 반영되다.
- 학벌을 중시하다.
- 학벌을 타파하다.
- 이번 우리 회사 인사 발령은 학벌과 학연이 반영되었다.
- 우리 사회의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를 없애려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.
- 가: 회사에서 학벌에 따라 직원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정말일까?
- 나: 설마. 학벌보다 실력을 중요시해야지.

조문2 명사

초상집에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현하여 상주를 위로함.

- 조문 예절.
- 조문 행렬.
- 조문을 가다.
- 조문을 오다.
- 조문을 하다.
- 어머니의 지인들이 빈소에 조문을 왔다.
- 아버지께서는 빈소를 차리거나 조문을 받지 않도록 유언하셨다.
- 가: 어제 유민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.
- 나: 그래? 오늘 빈소에 조문을 가야겠다.

형부 명사

언니의 남편. 또는 그 사람을 부르는 말.

-언니와 형부.

-형부의 건강.

-형부가 되다.

-형부가 생기다.

-형부를 만나다.

-형부와 친하다.

-언니네 집에서는 야근이 잦은 언니 대신 형부가 살림과 조카 육아를 맡고 있다.

-한 살 위인 언니가 결혼을 해서 나도 이제 형부가 생겼다.

-가: 언니,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? 무슨 일 있어?

-나: 네 형부랑 말다툼을 조금 했어.

-가: 형부, 언니 어디 갔어요?

-나: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.

학번 명사

대학교나 대학원에서, 입학 연도와 학과에 따라 학생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.

-학번을 적다.

-학번을 쓰다.

-학번을 물어보다.

-지수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답안지에 학번과 이름을 적었다.

-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과제에 반드시 학과와 학번을 쓰라고 당부하셨다.

-가: 지수야, 너 학번이 어떻게 되니?

-나: 네, 제 학번은 20240306입니다.

같은 해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 연도를 고유 번호로 삼아서 붙인 번호.

-같은 학번.

-다른 학번.

-80년대 학번.

-90년대 학번.

-학번이 같다.

-학번이 높다.

-학번을 대다.

-지수는 졸업 후에도 같은 학번 동기들과 계속 모임을 하고 있다.

-오늘 개강 모임 때는 학과 전체 모임 후에 학번별로 따로 모임도 있었다.

-가: 승규가 너보다 한 살이 많으니까 선배 아니야?

-나: 아뇨, 학번은 저랑 같아요.

배신 명사

상대방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.

-동료의 배신.

-동지의 배신.

-애인의 배신.

-친구의 배신.

-배신을 당하다.

-배신을 하다.

-돈 때문에 배신을 일삼는 너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.

-같은 팀 동료의 배신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던 우리 팀 작전이 들통나 버렸다.

-가: 나는 요새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고 다 싫어.

-나: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해.

애칭 명사

원래 이름 대신 친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.

-귀여운 애칭.

-애칭이 웃기다.

-애칭이 재미있다.

-애칭을 부르다.

-애칭을 붙이다.

-애칭으로 통하다.

-민준이는 학교에서 메뚜기라는 애칭으로 통한다.

-나는 지수에게 고양이라는 귀여운 애칭을 붙여 주었다.

-가: 새로 태어난 아기를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나요?

-나: 네. 저희 부부는 '까꿍'이라고 불러요.

중매 명사

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남녀를 소개하는 일.

-중매가 들어오다.

-중매를 부탁하다.

-중매를 서다.

-중매를 하다.

-중매로 만나다.

-좋은 조건의 중매가 들어왔지만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다.

-결혼을 할 나이가 되니 여기저기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.

-가: 언니는 형부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? 연애를 오랫동안 했었나?

-나: 아니. 나는 이모의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어.

친화 명사

서로 친하게 잘 어울림.

-여성 친화.

-환경 친화.

-친화 능력.

-친화를 강조하다.

-친화에 강하다.

-민준이는 주위의 동료를 잘 챙겨서 친화 관계가 돈독하다.

-우리는 자연 친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일 아침 가벼운 등산을 하고 있다.

-가: 지수가 다른 아이들과의 친화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.

-나: 우리 지수가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그런가 봐요.

푸대접 명사

정성을 쏟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.

-주인의 푸대접.

-멀시와 푸대접.

-푸대접을 받다.

-푸대접을 참다.

-푸대접을 하다.

-초췌한 행색의 노인은 행인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.

-눈엣가지와 같았던 김 씨는 주변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.

-가: 뭐 이런 식당이 다 있어?

-나: 그러게 말이야. 이렇게 손님에게 푸대접을 하는 곳도 드물 거야.

대장1 명사

한 무리나 집단의 우두머리.

-대장 자격.

-대장 형세.

-대장이 앞장서다.

-대장을 따르다.

-대장으로 삼다.

-팀원들은 대장의 말에 따라 잠시 쉴 곳을 찾았다.

-주먹으로 보나 공부로 보나 우리 반 대장은 바로 나였다.

-나는 동네 꼬마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펍 재미있었다.

(놀리는 말로) 어떤 일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.

-먹기 대장.

-오락 대장.

-우기기 대장.

-잠자기 대장.

-잘난 척 대장.

-거짓말 대장인 형의 말을 믿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-나는 종일 울기만 하는 동생에게 울기 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.

-가: 엄마, 저는 아기 때 양전했어요?

-나: 아니. 매사에 고집 피우는 떼쓰기 대장이었어.

군대에서, 원수의 아래이고 중장의 위인 장군 계급.

-대장의 권위.

-대장이 명령하다.

-대장이 부임하다.

-대장으로 임명하다.

-병사들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적진을 기습 공격했다.

-대장이 직접 지휘를 맡은 부대는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뒀다.

하객 명사

축하해 주러 온 손님.

-수많은 하객.

-잔칫집 하객.

-하객이 닥치다.

-하객이 들어오다.

-하객을 맞이하다.

-하객들로 붐비다.

-토요일 오후 결혼식장은 많은 하객들로 발을 딛을 틈이 없었다.

-아이의 돌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에게 우리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교제를 나누었다.

-가: 어제 결혼식 잘 다녀왔니?

-나: 응.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수줍게 웃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참 예뻐더라.

자손 명사

자식과 손자.

-직계 자손.

-슬하의 자손.

-자손이 많다.

-자손이 성공하다.

-자손이 없다.

-자손이 잘되다.

-김 할머니의 자손은 아들 셋, 딸 넷에 손자 스무 명으로 매우 많다.

-박 선생님은 명절 때마다 자손들을 모아 두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.

-가: 할아버지, 슬하에 자손이 몇이나 되세요?

-나: 아들 둘에 손자 넷이야.

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.

-가문의 자손.

-명문가 자손.

-자손 대대로.

-자손이 끊기다.

-자손이 번성하다.

-자손을 퍼뜨리다.

-그는 오십 년 전 마을 지주였던 이 씨 가문의 자손이다.

-오랜 명문 집 자손인 민준이는 매년 조상님 제사를 드린다.

-가: 할머니, 무슨 기도 하셨어요?

-나: 신령님께 자손 대대로 건강하게 해 달라고 빌었단다.

상봉 명사

서로 만남.

-이산가족 상봉.

-모녀 상봉.

-상봉 모임.

-상봉의 감격.

-상봉을 바라다.

-상봉을 염원하다.

-상봉을 하다.

-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상봉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.

-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상봉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별을 해야만 했다.

-전쟁 중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들과의 상봉을 꿈꾸었다.

터놓다 동사

막힌 길이나 닫힌 문 등을 통하게 하다.

-독을 터놓다.

-길을 터놓다.

-담을 터놓다.

-문을 터놓다.

-물꼬를 터놓다.

-농부는 논에 물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놓았다.

-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을 터놓았다.

-인부들은 길을 터놓기 위해 도로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있었다.

-가: 이 마을은 이웃끼리 담을 터놓고 지내신다고요?

-나: 네, 그만큼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에요.

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이 드러내다.

-마음을 터놓다.

-흥금을 터놓다.

-감정을 터놓다.

-가슴을 터놓다.

-터놓고 이야기하다

-그녀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다.

-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였다.

-지수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터놓고 유민에게 말하기 시작했다.

-가: 자, 우리 남자들끼리니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해 보자.

-나: 그래, 서로 숨기지 말고 편하게 말해 보자고.

양6 의존 명사

여자인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.

-박 양.

-이 양.

-최 양.

-김 양은 성격이 좋고 친절해서 인기가 높다.

-한승규 군과 김지수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.

-가: 유민 양, 손님께 대접할 다과를 회의실로 내오게.

-나: 네, 부장님. 곧 준비해서 가겠습니다.

-가: 김 양! 김 양!

-나: 사장님, 김지수 씨는 잠시 외부에 나가 있는데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?

연말연시 명사

한 해의 마지막 시기와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.

-연말연시 분위기.

-연말연시 행사.

-연말연시를 맞다.

-연말연시를 보내다.

-연말연시를 앞두고.

-그 레스토랑은 연말연시의 예약이 한 달 전에 모두 찼다.

-연말연시가 되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로 고속 도로가 정체 현상을 빚었다.

-가: 우리 회사는 이번에는 송년회를 안 하나 봐.

-나: 경기가 안 좋아서 연말연시 행사를 줄이기로 했대.

출생 명사

세상에 태어남.

-출생 신고.

-출생의 비밀.

-출생과 사망.

-출생을 축하하다.

-나는 아들이 태어난 다음 날 바로 출생 신고를 마쳤다.

-지수는 서울 출생으로 지금까지 꼭 서울에서 살았다.

선1 명사

결혼할 상대를 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나 보는 일.

-선 자리.

-선을 보다.

-선을 주선하다.

-승규는 선을 통해 만난 지수와 결혼하였다.

-김 씨는 선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마땅한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했다.

-가: 여자 친구도 없는데 결혼은 하고 싶고. 어떡하지?

-나: 내가 선을 주선해 볼까?

물건이나 사람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일.

-선을 보이다.

-우리 회사는 다음 달에 신제품을 선을 보일 예정이다.

-그 가수는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새 노래를 선을 보였다.

-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 화가의 새로운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.

-가: 그 디자이너가 새로운 작품을 선 보였다.

-나: 그래? 우리 같이 보러 가자.

불화 명사

서로 사이 좋게 어울리지 못함.

-가족 불화.

-불화 문제.

-불화 원인.

-불화를 겪다.

-불화를 일으키다.

-그 부부는 오랜 불화 끝에 결국 이혼을 하였다.

-민준은 직장 상사와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.

-가: 윗집은 왜 만날 시끄러워?

-나: 부부 간 불화가 심각한 것 같아요.

친지 명사

서로 친하여 가깝게 지내는 사람.

-친지의 도움.

-친지의 소식.

-친지가 방문하다.

-친지를 대접하다.

-친지를 초대하다.

-친지에게 부탁하다.

-나는 친지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.

-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멀리 계신 친지들도 병문안을 오셨다.

-가: 너는 왜 약혼식 한다고 말도 안 했어?

-나: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치렀거든.

고3 관형사

이미 세상을 떠난.

-고 박경리 선생의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.

-우리는 고 이태석 신부가 보여 준 사랑과 헌신을 기리며 아프리카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.

구박 명사

못 견딜 정도로 매우 심하게 괴롭힘.

-온갖 구박.

-모진 구박.

-구박이 심하다.

-구박을 받다.

-구박을 주다.

-구박을 퍼붓다.

-민준이는 후배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구박을 주지 않았다.

-나는 입사 이후 실적이 좋지 않아 상사들에게 늘 구박을 당했다.

-가: 너는 왜 그렇게 후배들을 못살게 구니?

-나: 이 정도는 내가 선배들한테 받은 구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

연장자 명사

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.

-최고 연장자.

-연장자의 연륜.

-연장자로서의 체면.

-연장자에 대한 예의.

-연장자를 우대하다.

-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.

-그 모임의 최고 연장자인 김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의해 모임의 장으로 뽑혔다.

지인 명사

아는 사람.

-가까운 지인.

-지인 관계.

-지인의 소개.

-지인을 만나다.

-지인을 통하다.

-나는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.

-동생은 영화감독이어서 지인들 중에 유명한 배우도 꽤 있다.

-가: 집들이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?

-나: 아니.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할 거야.

절친하다 형용사

매우 친하다.

-절친한 사이.

-절친한 지인.

-절친하게 지내다.

-둘은 관심사가 달랐지만 절친한 편이었다.

-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.

-나는 지수와 절친하게 지냈다.

-가: 지수야, 너 다음 달에 결혼한다면서?

-나: 응, 친척들과 절친한 지인들 몇 분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할 예정이야.

혈연 명사

같은 핏줄로 이어진 관계.

-혈연 공동체.

-혈연 관계.

-혈연 사회.

-혈연을 중요시하다.

-혈연을 따지다.

-혈연으로 맺어지다.

-혈연으로 이어지다.

-혈연으로 태어나다.

-그 회사는 사장, 관리부장, 영업부장이 모두 형제로 혈연을 중요시하였다.

-김 교수와 나는 사촌이어서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이다.

-우리 회사는 혈연이나 학연 등을 따지지 않고 직원을 뽑는다.

군3 대명사

(조금 높이는 말로) 듣는 사람이 친구이거나 손아래 남자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.

-군의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?

-군이야말로 내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일세.

-할아버지는 한 능통한 청년에게 '군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'라고 질문하였다.

-가: 내가 군에게 여러모로 실례를 많이 했네.

-나: 선생님, 아닙니다.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.

삼삼오오 명사

사람들이 서넛 또는 대여섯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. 또는 그런 모양.

-삼삼오오 둘러앉다.

-삼삼오오 들어오다.

-삼삼오오 떼를 짓다.

-삼삼오오 모여들다.

-삼삼오오 모여 앉다.

-삼삼오오 모이다.

-삼삼오오 무리를 짓다.

-삼삼오오 몰려들다.

-삼삼오오 어울리다.

-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다.

-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.

-추운 날씨에 사람들은 난로 앞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.

-가: 강당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던데, 무슨 일이 있나 봐?

-나: 응, 오늘 저녁에 강당에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있대.

년생 의존 명사

어떤 학년의 학생임을 이르는 말.

-삼 년생.

-이 년생.

-일 년생.

-고교 삼 년생인 민준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.

-유민이의 피아노 실력은 초등학교 일 년생의 실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.

-가: 지수가 올해 몇 학년이지?

-나: 여고 이 년생이지 지금.

친분 명사

아주 가깝고 두터운 정.

-두터운 친분.

-친분이 없다.

-친분이 있다.

-친분을 끊다.

-친분을 맺다.

-친분을 유지하다.

-나는 이웃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었다.

-승규는 승규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친분 관계를 유지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.

-가: 지수한테 부탁해 보면 안 될까?

-나: 난 개랑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부탁하기가 좀 그런데.

대등 명사

어느 한쪽의 힘이나 능력이 낮거나 못하지 않고 서로 비슷함.

-대등 관계.

-대등 구조.

-대등 수치.

-대등 연결.

-대등 접속.

-대등의 서비스.

-대등의 품질.

-일반적으로 대등 구조의 문장은 접속어를 중심으로 대칭적 구조를 가진다.

-계약은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대등 관계로 이루어지는 편이 좋다.

-가: 두 제품 모두 대등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나: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군요.

상부상조 명사

서로서로 도움.

-상부상조의 미덕.

-상부상조의 전통.

-상부상조의 풍습.

-상부상조를 하다.

-옛날에 우리의 농촌 사회는 상부상조를 밑바탕으로 하는 협동 사회였다.

-상부상조의 정신은 우리 전통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정신이었다.

-누구나 서로 부락을 들어주며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.

부양 명사

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봄.

-가족 부양.

-부양 계획.

-부양 능력.

-부양의 의무.

-부양이 되다.

-부양을 받다.

-부양을 하다.

-가장들에게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.

-요즘은 자식들의 부양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.

-가: 부모님은 꼭 장남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

-나: 아니요. 자식 중 누구라도 부양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

오붓하다 형용사

아늑하고 정답다.

-오붓한 분위기.

-오붓한 순간.

-오붓한 시간.

-오붓한 자리.

-관계가 오붓하다.

-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.

-둘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.

-가: 너 남자 친구랑 정말 오붓해 보이던데?

-나: 응,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.

살림이나 수입이 넉넉하여 실속 있다.

-오붓한 봉급.

-오붓한 수당.

-오붓한 월급.

-별이가 오붓하다.

-수입이 오붓하다.

-나는 힘들게 일한 대신 꽤 오붓한 일당을 받았다.

-배추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더니 예전보다 수입이 오붓하다.

-가: 첫 월급은 얼마나 받았어?

-나: 추가 수당까지 합하면 꽤 오붓하게 받았어.

밀어주다 동사

적극적으로 도와 주다.

-선수를 밀어주다.

-실험을 밀어주다.

-연구를 밀어주다.

-프로젝트를 밀어주다.

-후보를 밀어주다.

-승규는 자신을 밀어준 회장을 배반하고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.

-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을 밀어주었다.

-가: 정부는 대학의 약학 대학 연구팀을 밀어준다고 했다면서?

-나: 응, 의료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발표했대.

특정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다.

-국회의원으로 밀어주다.

-대통령으로 밀어주다.

-반장으로 밀어주다.

-주인공으로 밀어주다.

-회장으로 밀어주다.

-같은 반 친구들은 민준이를 전교 회장으로 밀어주기로 했다.

-이 지역 사람들은 김 후보의 공약을 듣고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기로 결정했다.

-가: 신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대?

-나: 피디가 한눈에 알아보고 주인공으로 밀어줬대.

동성2 명사

성별이 같음.

-동성 친구.

-동성 커플.

-그 둘은 항상 붙어 다녀서 동성 커플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.

-승규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인 친구들이랑만 어울려 동성이 아닌 사람은 불편하게 느낀다.

-가: 오늘 누구 만나? 너 또 다른 남자 만나지?

-나: 아니야. 동성 친구 만나니까 걱정 마.

참견 명사

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어 나서거나 말함.

-괜한 참견.

-쓸데없는 참견.

-참견이 심하다.

-참견이 지나치다.

-참견을 하다.

-동생이 공부를 안 할까 봐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니 쓸데없는 참견이었다.

-아이들이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자식 일에 참견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다.

-가: 이야기를 들어 보니 네가 승규에게 잘못된 것 같은데.

-나: 네가 뭔데 참견이야?

커플 명사

짝이 되는 두 사람.

-다정한 커플.

-데이트하는 커플.

-캠퍼스 커플.

-커플이 되다.

-커플이 늘다.

-이 커플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.

-이번 여행에는 총 10쌍의 커플들이 참여하게 된다.

-가: 승규와 지수는 왜 저렇게 연인처럼 붙어 다니는 거니?

-나: 몰랐어? 재네 원래 커플이잖아.

백년해로 명사

부부가 되어 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함께 늙음.

-백년해로를 결심하다.

-백년해로를 맹세하다.

-백년해로를 소망하다.

-백년해로를 약속하다.

-백년해로를 언약하다.

-백년해로를 하다.

-신랑과 신부는 가족과 하객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맹세했다.

-한국의 전통 혼례에서 기러기는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사랑의 상징물이다.

-가: 당신과 영원히 백년해로를 하고 싶어요.

-나: 저도 그래요, 여보.

맞장구 명사

남의 말이 옳다고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.

-최고의 맞장구.

-맞장구가 없다.

-맞장구가 있다.

-맞장구를 놓다.

-맞장구를 치다.

-나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가며 맞장구를 쳐 주었다.

-남자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.

-대화 중에 맞장구가 없으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다.

둘이 마주 서서 장구를 치는 일.

-농악의 맞장구.

-흥겨운 맞장구.

-맞장구가 돌아.

-맞장구를 치다.

-맞장구로 붙다.

-풍물놀이 공연에서 두 사람은 신명 나게 맞장구를 쳤다.

-우리는 서로 호흡을 맞춘 맞장구 연주로 신명을 돋웠다.

불효자 명사

- 부모를 정성껏 잘 모시지 않는 자식.
- 불효자의 눈물.
 - 불효자의 후회.
 - 불효자는 옳습니다.
 -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입니다.
 - 미리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결정한 것이니 불효자라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.
 - 유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불효자로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했다.
 - 가: 아드님이 참 효자입니다. 잘 키우셨습니다.
 - 나: 네, 효자이지요.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효도 한 번 못한 불효자라 자식들 보기 부끄럽습니다.

모친 명사

-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정중하게 이르는 말.
- 늙은 모친.
 - 모친의 무덤.
 - 모친이 돌아가시다.
 - 모친이 위중하다.
 - 모친을 여의다.
 - 모친을 잃다.
 - 모친께 말씀드리다.
 - 모친께 아뢰다.
 - 모친 밑에서 자라다.
 - 민준은 친구의 모친을 뵈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.
 - 김 일병은 모친이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.
 - 가: 저분이 김 선생님의 모친이신가요?
 - 나: 네. 김 선생님을 찾으러 어머니께서 오셨다던데 그분이신가 보네요.

따돌림 명사

싫거나 싫은 사람을 따로 떼어 멀리하거나 괴롭힘.

-집단 따돌림.

-억울한 따돌림.

-따돌림 피해자.

-따돌림의 대상.

-따돌림을 당하다.

-따돌림을 받다.

-따돌림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.

-그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아직도 힘들어한다.

-부서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김 대리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썼다.

처가 명사

아내의 친정집.

-처가 식구.

-처가가 멀다.

-처가를 찾다.

-처가에 가다.

-처가에 머물다.

-민준이는 처가가 너무 멀어 명절마다 고생이었다.

-아침 일찍 처가에 간 아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.

-처가에는 아직 결혼 전에 아내가 쓰던 방이 남아 있었다.

-가: 지난 주말에는 장인어른 생신이라 처가에 다녀왔어.

-나: 그렇군, 모임에 안 나왔길래 어디 갔나 했지.

효녀 명사

부모를 정성껏 잘 모시는 딸.

-효녀 노릇.

-효녀로 소문나다.

-효녀로 알려지다.

-효녀는 매일 병원에 살다시피 하면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다.

-그녀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해 효녀라고 소문이 났다.

-가: 너가 웬일로 내 말을 다 듣니?

-나: 저도 이제 효녀 노릇 좀 하려고요.

대인2 명사

다른 사람을 상대함.

-대인 면접.

-대인 사고.

-대인 접촉.

-대인 홍보.

-이번 조사는 대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.

-이번 독감은 대인 접촉만으로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

-가: 신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

-나: 매장을 찾는 고객들 앞에서 직접 대인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요?

편들다 동사

어떤 편을 돕거나 감싸 주다.

-편드는 이유.

-자식을 편들다.

-친구를 편들다.

-한쪽을 편들다.

-적극적으로 편들다.

-아무도 이기적인 반장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.

-나는 언니와 형부의 싸움에서 형부를 편들었다.

-가: 민준아, 네가 잘못된 거야. 어서 누나한테 사과해.

-나: 엄마는 왜 맨날 누나만 편들고 감싸 줘요?

헐뜯다 동사

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나쁘게 말하다.

-헐뜯는 이야기.

-헐뜯고 미워하다.

-헐뜯고 욕하다.

-남을 헐뜯다.

-친구를 헐뜯다.

-뒤에서 헐뜯다.

-서로 헐뜯다.

-선거가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를 헐뜯는 말이 오고 갔다.

-미용실 여주인은 입만 열면 남편을 헐뜯었다.

-두 형제는 서로를 도우며 살기는커녕 헐뜯고 싸우기에 바빴다.

-가: 올해부터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.

-나: 좋은 생각이야. 헐뜯는 말을 자주 하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.

친족 명사

주로 이름의 성이 같고 촌수가 가까운 사람.

-먼 친족.

-가까운 친족.

-친족 관계.

-친족 범위.

-친족 집단.

-친족 호칭.

-친족을 파악하다.

-친족에 해당하다.

-그 분은 저의 먼 친족이세요.

-승규에게는 가까운 친족이 별로 없다.

-가: 친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 곳도 있대며?

-나: 응, 사촌과 결혼하고 그런가 봐.

같은 것에서 생겨서 나누어진 생물이나 언어 등의 한 갈래.

-친족 체계.

-친족을 발견하다.

-친족을 밝히다.

-친족을 증명하다.

-두 동물은 친족 관계에 있었지만 기후 차이로 인해 다르게 진화했다.

-한국어의 친족 언어를 밝히려는 언어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.

접대 명사

손님을 맞아 시중을 들거나 음식을 차려 모심.

-귀빈 접대.

-손님 접대.

-접대를 받다.

-접대가 잦다.

-접대를 준비하다.

-접대를 하다.

-김 부장은 업무 특성상 거래처 관계자들의 접대가 잦다.

-외국 사절단은 우리나라에 와서 성대한 접대를 받고 돌아갔다.

-아내는 집들이에 올 손님들의 접대를 위해 갖가지 음식을 준비했다.

헌신 명사

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함.

-헌신과 봉사.

-헌신과 희생.

-헌신을 강요하다.

-헌신을 기대하다.

-헌신을 요구하다.

-헌신을 하다.

-헌신에 감동하다.

-헌신으로 보살피다.

-헌신으로 시중들다.

-우리는 선생님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.

-어머니는 사랑과 헌신으로 세 아이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냈다.

-가: 이제껏 회사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이제 회사를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.

-나: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로군.

반항 명사

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달려들거나 부딪힘.

-사춘기의 반항.

-기성세대에 대한 반항.

-부모에 대한 반항.

-사회에 대한 반항.

-선생님에 대한 반항.

-아버지에 대한 반항.

-이유 없는 반항.

-제도에 대한 반항.

-학교에 대한 반항.

-반항 정신.

-반항이 계속되다.

-반항을 하다.

-사춘기 때 내 반항은 철이 없는 행동이었다.

-오빠는 선생님께 빼돌려진 태도로 반항을 했다.

-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남편의 말에 말대꾸를 하며 반항을 했다.

-가: 우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반항을 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아.

-나: 그 나이에는 그렇지 뭐. 다 지나갈 거야.

헌신적1 명사

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.

-헌신적인 구매.

-헌신적인 봉사.

-헌신적인 사랑.

-헌신적으로 노력하다.

-헌신적으로 보살피다.

-헌신적으로 일하다.

-박 선생은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.

-아이들은 내 헌신적인 간호에 보답이라도 하듯 병을 이겨 냈다.

-가: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실 수 있었나요?

-나: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.

만형 명사

여러 형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형.

-든든한 만형.

-만형 노릇.

-만형을 따르다.

-우리는 만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른다.

-나를 업고 집으로 걸어가는 만형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.

-민준이는 만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무엇이든 양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.

-가: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에는 만형인 네가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.

-나: 네, 잘 알겠어요.

부응 명사

기대나 요구 등에 따라 응함.

-부응을 하다.

-부응을 못하다.

-학교 축제는 학생들의 열띤 기대에 부응을 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.

-월드컵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이라도 하듯 유치 위원회가 월드컵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

험담 명사

남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 등을 들추어 헐뜯음. 또는 그런 말.

-험담이 지나치다.

-험담을 늘어놓다.

-험담을 일삼다.

-험담을 지어내다.

-험담을 퍼붓다.

-험담을 하다.

-사내의 입에서는 마누라에 대한 온갖 험담이 쏟아졌다.

-형은 동기들에 대해 듣기 거북한 욕설과 험담을 늘어놓았다.

-가: 친구들이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.

-나: 자기들끼리 하는 험담에 너무 신경 쓰지 마.

조부모 명사

할아버지와 할머니.

-조부모의 산소.

-조부모의 생애.

-조부모가 돌아가시다.

-조부모가 키우다.

-조부모를 모시다.

-조부모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유품을 정리했다.

-승규는 한 집에서 조부모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.

-가: 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들었어.

-나: 응. 그래서 난 조부모 밑에서 자랐어.

첫인사 명사

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, 또는 편지 등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.

-어색한 첫인사.

-첫인사를 건네다.

-첫인사를 나누다.

-첫인사를 올리다.

-첫인사를 하다.

-편지로 첫인사를 하다.

-승규는 여자 친구의 부모님께 첫인사를 올리는 자리가 사뭇 긴장되었다.

-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마치 친한 친구인 듯이 정답게 첫인사를 나누었다.

-가: 선생님 작품의 애독자인데 이렇게 직접 첫인사를 올리게 되니 영광입니다.

-나: 좋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. 저 또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.

동등 명사

등급이나 정도가 같음. 또는 그런 등급이나 정도.

-동등 계층.

-동등 대우.

-동등 임금.

-동등의 권리.

-동등의 자격.

-동등의 책임.

-동등의 학력.

-이번 일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의 잘못이 있다.

-우리 회사는 고졸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신입 사원을 채용한다.

-가: 이번에 경영 부서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, 반드시 경영학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나요?

-나: 아닙니다.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동등의 자격이 있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송년 명사

한 해를 보냄.

-송년 모임.

-송년 음악회.

-송년 파티.

-송년 행사.

-송년의 밤.

-그는 야근을 마친 후에 대학교 동창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.

-죽마고우인 그들은 송년 파티를 열어,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가졌다.

유유상종 명사

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사귀.

-유유상종의 법칙.

-유유상종으로 만나다.

-유유상종으로 모여 살다.

-유유상종으로 모이다.

-유유상종으로 어울리다.

-유유상종이라고, 그곳에는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들만 모였다.

-언니와 형부는 비슷한 점이 많은 커플로, 유유상종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다.

-유유상종의 법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과 잘 어울린다.

-가: 지수하고 유민이는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대.

-나: 유유상종이구나.

재혼 명사

다시 결혼함. 또는 그런 결혼.

-재혼을 권유하다.

-재혼을 바라다.

-재혼을 반대하다.

-재혼을 생각하다.

-재혼을 시키다.

-재혼을 하다.

-자식들은 십 년이 넘게 홀로 지내는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유했다.

-그녀는 재혼을 한 아버지의 부인을 처음에 어머니로 대하기가 어려웠다.

-가: 네가 사별한 지도 벌써 십 년이 넘었는데 이제 재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?

-나: 어머니, 전 재혼할 마음 없어요.

회갑연 명사

- 사람이 태어난 지 만 육십 년이 되는 예순 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.
- 조출한 회갑연.
 - 회갑연이 시작되다.
 - 회갑연을 맞이하다.
 - 회갑연을 베풀다.
 - 회갑연을 준비하다.
 - 회갑연을 지내다.
 - 회갑연에 참석하다.
- 내가 스무 살에 맏이를 낳았으니 회갑연을 치를 때 맏이는 이미 마흔이었다.
-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자식의 회갑연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다.
- 가: 어머니, 회갑연을 제대로 베풀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.
- 나: 별말을 다 하는구나, 요새 육십 살이 어디 예전 육십 살이더냐?

선후배 명사

- 선배와 후배.
- 고향 선후배.
 - 대학 선후배.
 - 선후배 관계.
 - 선후배 동료.
 - 선후배 사이.
- 지수의 성실함은 함께 일하는 선후배 동료 모두에게 인정받았다.
- 아내와 나는 고향 선후배로,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만난 후 결혼한 사이이다.
- 가: 두 사람이 꽤 친해 보이네요.
- 나: 네, 저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 사이예요.

친교 명사

친하고 가깝게 사귀. 또는 그렇게 사귀. 정.

-두터운 친교.

-친교 관계.

-친교가 돈독하다.

-친교가 없다.

-친교를 나누다.

-친교를 맺다.

-그들은 평생 동안 서로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남으로써 친교를 돈독히 하였다.

-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어서 사람들과 친교를 잘 맺지 않는다.

-가: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였군요.

-나: 서로 알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교가 있던 사이입니다.

헌신적2 관형사

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.

-헌신적 노력.

-헌신적 사랑.

-헌신적 참여.

-헌신적 태도.

-헌신적 활동.

-남자의 헌신적 구애가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.

-과거에는 아내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헌신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.

-가: 입사 후 포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.

-나: 회사를 위해 헌신적 자세로 일하겠습니다.